

위성미 '2천만 달러 소녀'

작년 수입 총 2,023만 달러 女골퍼 1위·남녀 전체 6위

위성미(18·나이키골퍼)가 지난 해 총 2천23만 5천224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여자 골퍼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전문 월간지인 골프 다이제스트 2월호는 지난 해 전 세계 골퍼 선수들의 수입을 조사해 상위 50명을 발표했는데 위성미는 2천23만 5천224달러로 여자 선수 중 1위, 남녀 통틀어서는 6위에 자리했다.

지난 해 대회 상금으로 73만 5천224달러를 획득했던 위성미는 대회 상금 외에 광고 모델 등 '부업'으로만 1천950만 달러를 벌어들여 남녀 통틀어서 13위에 그친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1천301만 1천509달러)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여자 선수가 이 부문 '톱 10'에 든 것은 위성미가 처음으로 위성미는 2005년 집계에서는 15위에 올랐었다.

이 잡지는 '위성미는 나이키, 소니, 오메가의 모델로 나서 1천250만 달러를 벌었고 남자 대회 초청 등으로 350만 달러, 미국 외 지역 광고 모델로 나서 3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전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4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우즈는 대회 상금으로 1천194만 1천827달러를 획득한 데 이어 8천700만 달러를 골프 코스 밖에서 벌어들여 총 9천 894만 1천827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 잡지는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우즈의 연간 수입이 1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 미켈슨(미국)이 2위를 했는데 총 수입은 4천425만 6천505달러로 우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놀드 파머(77·미국)는 총 2천754만 2천850달러로 지난 해 4위에서 한 계단 뛰어오르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퍼)도 총 수입 570만 6천367달러로 전체 24위에 올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서 톱 클래스 선수임을 수치로 입증했다.

한편 이 잡지가 집계한 지난 해 전 종목 스포츠 스타들의 수입 상위 10위까지를 보면 우즈가 1위를 지켰고 은퇴한 'F1 영웅' 미하엘 슈마허가 5천800만 달러로 2위,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5천500만 달러로 3위에 올랐다. 미켈슨이 4위, 5위부터 7위까지는 미국프로농구(NBA)의 마이클 조던(3천200만 달러), 코비 브라이언트(3천100만 달러), 사길 오닐(3천만 달러)이 휩쓸었다.

그 뒤로는 모터 사이클 선수인 발렌티노 로시(3천만 달러), 미식축구의 톰 브래디, 미국 메이저리그 알렉스 로드리게스(이상 2천900만 달러)가 10위 안에 들었다.

축구에서는 데이비드 베컴이 2천700만 달러로 12위, '테니스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는 1천900만 달러로 16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가 10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알라이골프장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 스킵스게임에서 샷을 한 후 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미 손목 부상

붕대 감고 소니오픈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 4년째 초청을 받은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퍼)가 손목을 다쳤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AP통신은 10일 위성미가 "손목이 아픈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대회에 나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 골프 전문 케이블 방송사인 골프채널은 9일 인터넷에서 미셀 위가 손목을 다쳤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석달 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 챔피언십 1라운드 때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진 볼을 쳐내다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인대가 늘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세한 근육 파열 또는 신경이 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니오픈에는 손목에 압박 붕대를 감고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덧붙였다.

미셀 위가 1, 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칠 선수로는 개빈 콜스(호주), 스티브 마리노(미국)로 정해졌다.

콜스는 지난해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가 267.7야드(196위)에 불과했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은 무려 73.4%(5위)에 이르러 위성미와 좋은 대조를 이룰 전망이다.

위성미와 콜스, 마리노는 12일 오전 3시30분 1번홀에서 티오프한다. 최경주(37·나이키골퍼)는 오전 6시40분 트로이 맷슨, 마크 캄페베키아와 함께 10번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계亞대회 개·폐회식 남북 공동 입장 하자”

北 제의...선수단복 지원 요청도

북한이 28일 중국 장춘에서 열릴 2007동계아시아게임 개폐회식에 공동입장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북측이 지난 5일 관문점 연락관을 통해 창춘 동계아시아게임 개폐회식에서 남북한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것을 제의하며 선수단복 지원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후 국제종합대회에서 남북한 공동 입장이 관례화됨에 따라 KOC는 정부와 의의를 거쳐 단복을 제공하고 통산 아홉 번째 공동 입장에 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해 논의됐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은 지난 해 12월 아시안게임이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열고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논의했으나 선수단복 방식에 이견을 보였다.

당시 양측은 지난 연말까지 4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에서 제의가 오지 않아 회담이 미뤄진 상태다.

KOC 관계자는 “4차 회담은 북측에서 시기와 장소를 정해 먼저 제안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조금 더 기다려 본 뒤 연락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연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SK 日 전훈에 합류

23일부터 5일간

모친상을 치른 뒤 운동화끈을 조여 맨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사진)이 23일 일본 시코쿠 고지(高知)현에 차려질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스프링캠프에 합류한다.

SK 관계자는 10일 “이틀 전 어머니 장례를 마무리한 이승엽이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SK 캠프에서 훈련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승엽은 애초 30일까지 SK 선수단과 함께 훈련한 뒤 요미우리 전훈 캠프에 열리는 2월1일 미야자키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모친상으로 일정을 바꿨다.

오전에 대구 세진헬스에서 하체 웨이트 트레이닝, 오후에는 경북고에서 간단한 배팅과 캐치볼 훈련을 하고 있는 이승엽은 20일까지 국내 일정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왼쪽 무릎 연골 파열을 제거하는 관절경 수술을 한 이승엽은 이후 하체강화에 주력해 왔으나 모친상 때 빈소를 찾은 문상객들과 맞절을 하는 바람에 무릎부위에 약간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선우 샌프란시스코와 1년 스플릿 계약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완투수 김선우(30)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스플릿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우의 아버지 김대중씨는 10일 “선우와 통화했을 때 자세한 계약 내용과 액수는 물어보지 못했지만 샌프란시스코와 1년간 스플릿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연봉이 다른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선우를 포함한 26명의 스프링캠프 초청 선수 명단과 김선우의 계약 소식을 발표

했다. 지역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도 계약 내용만 짧막하게 전했다 뿐 정확한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대중씨는 “선우가 일단 계약 사실만 통보해 주고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만을 했다. 1년간 계약한 것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지막 기회를 살려 빅리그에 잔류한 뒤 다른 팀을 물색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선우는 캠프에서 5선발 또는 중간 계투 요원으로 합격점을 받아 빅리그로 승격될 경우 메이저리그 최소 연봉인 31만 달러 이상을 손에 질 전망이다.

오상은·곽방방 우승

종합타구선수권 남녀부

한국 남자 타구의 대들보 오상은(KT&G)과 홍콩 국가대표 출신의 귀화 선수 곽방방(KRA)이 제6회 종합타구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2005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동메달리스트 오상은은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남자부 단식 결승에서 2004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삼성생명)을 4-2(11-6 4-11 11-8 11-

25-11 15-13)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지난 대회 챔피언 오상은은 대회 2연패와 함께 지난 1999년과 2002년 우승을 포함해 통산 네 번째 우승 기쁨을 누렸다.

이어 열린 여자부 단식 결승에서는 ‘제2의 한-중 핑퐁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곽방방이 한국 대표팀 에이스 김경아(대한항공)에 4-2(9-11 13-11 13-11 11-2 9-11 11-8)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지난 2004년 대회 때 남편 김승환(현대시멘트 코치)과 사상 첫 부부 혼합복식 금메달을 합작했던 곽방방은 지난 해 10월 전국체전 우승에 이어 종합선수권까지 제패하는 최고의 기량을 보였다.